

메르스 사태 이후 3년, 꼼꼼한 복기가 필요하다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 이 희 영

복기(復棋)[-끼--]

(동사) 바둑에서 한 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비평하기 위하여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 보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빠르게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그해 2015년부터 느리게는 작년 여름까지 ‘메르스 백서’의 성격을 가진 출판물이 40여권 발간되었다(표 참고). 백서라는 이름을 모두 달고 있지는 않지만, 메르스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일부는 평가와 제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기록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과연 3년 전 메르스 사태를 제대로 복기한 것일까? 당시의 상황을 꼼꼼하게 복기하여 평가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구분	발행처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광역지자체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기초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안성시, 평택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서울시 구로구, 강남구,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순창군,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북도 옥천군
의료기관	경기도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서북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명지병원, 단국대병원
협회 / 학회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NGO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메르스라는 낯선 이름의 감염병을 전 국민이 알게 되고, 신종감염병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한 것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다. 많은 병원에서 병문안 문화 개선운동을 하면서, 면회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련 홍보 활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감염병 발생 소식이 빠르게 일선 병원에 전달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었고, 2명이었던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4명으로 늘어난 것도 좋은 변화이다. 매년 진행되는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은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진행되고, 보호복 착용의 실습도 정기적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발열환자 선별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자로 가득한 응급실은 여전히 혼잡하다. 감염 예방의 기본 수칙인 손씻기에 대한 조사*에서 손 씻는 시간이 21초 이상인 경우는 겨우 2.5%였고, 1~5초만에 손씻기를 마치는 조사 대상자가 46.4%로 절반 정도였다. 용변을 보고 나서 손을 씻는 사람은 73.7%였지만,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은 26.2%에 불과했다. 늘어나기는 했지만 1,200만 경기도민에게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조사할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네 명 뿐이다.

* 2015년 9월 전국 17개 시·도 지하철역·공항 화장실 이용자 1,190명 관찰 조사

메르스 이후에도 다양한 감염병 관련 사건사고가 있었다. 2017년 한해만 돌아보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연초 포천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고양이 감염이 있었고, 2월에는 여주의 공원 급수시설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6월에는 광명시 일대 3개 학교에서 비슷한 시기에 집단설사가 발생하였고, 7월에는 의정부 아파트 단지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었다. 8월에는 화성시 대형마트 식품조리 종사자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였다.

메르스 사태 이후 3년, 다시 한번 당시 상황에 대한 꼼꼼한 복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다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2015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메르스가 아닌 새로운 감염병이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발생하면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갑자기 시작되는 감염병에 의한 위기를 겪는 시간은 길지 않지만, 훨씬 더 긴 시간을 복기와 대응준비에 써야 하는 이유이다.